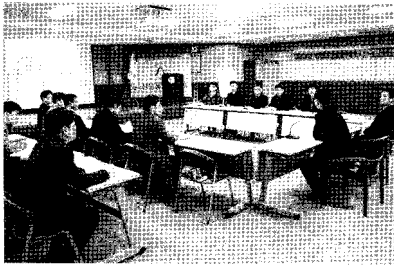


쇠고기 이력제



쇠고기 이력제 현장지원 전담반 교육

지난 3월 2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우리원에 위탁된 쇠고기 이력제 업무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력제 시행 사업장의 업무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 전담반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에서는 2010년도 현장지원 전담반 운영계획, 현장 모니터링 추진계획, DNA 시료채취 및

모니터링 주의사항, 이력제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현장민원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서울지역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 현대화 착수

47년 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장축산물시장이 현대적·국제적 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성동구는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개발방안 수립 및 사업타당성분석 용역에 들어갔다고 지난 3월 25일 밝혔다.

마장축산물시장은 마장동 510-3번지 일대 11만6천 150㎡(인정시장 2만6천363㎡, 주변지역 8만9천787㎡)에 1천965개 업체(인정시장 720개사, 주변지역 1천245개사)로 형성돼 있다. 연간 약 2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 최대 유통시장으로, 현재 서울지역 축산물 공급량의 60%를 맡고 있다. 그러나 노후한 시설로 축산물을 손질하는 공간이 좁고 위생적 처리시설이 부족한 등 물론 주차난 등까지 겹치며 시설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6개월간의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개발방안 수립·사업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개발은 순환식으로 이뤄져 현재의 유통기능을 최대한 유지한다. 또한 개발구역범위·사업시행방식 등에 있어 주민과 시장상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지역

가평군 '한우연합회 생균제 사업장 개소식'

4경기 가평군이 지난 3월 21일 미생물 활용, 생균제사업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생균제사업장은 농가형 고체배양 시스템 구축으로 사료 효율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t 용량 배양기, 2t 수조, 이송기, 포장기 등 시설을 갖춰 1일 1t의 미생물제를 생산할 수 있다. 가평군은 미생물제를 축산농가에 공급, 한우사육농가에는 쌀겨와 옥수수가루 등을 미생물제와 배합해 3~4일간 발효시켜 미생물사료를 만들어 10kg 규격으로 포장해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강원지역

강원도, 축산물가공업체 판매 5천500억원 달성

강원도는 지난해 도내 160개 축산물가공업체 축산물(한우, 돼지, 닭, 우유, 계란) 판매액이 5천504억원을 달성하여 강원 축산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 축산물 판매액은

2008년도 판매액 4천15억원보다 37% 증가해 지난해 도내 축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며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축산물판매업이 크게 성장한 것은 국내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가 확대되고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국내산 축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축산물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된데 기인한 것으로 강원도는 분석했다. 강원도는 올해 축산물가공업체 판매액은 2009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6천1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축종별 브랜드육성, 축산물위생 안전성강화,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을 통한 강원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강원 축산물 판매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시, 한우사육농가에 톱밥 지원

동해시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톱밥을 제공했다. 동해시는 지난 3월 20일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한우사육농가 38곳에 톱밥 1만포(30kg 기준)를 지원했다. 또 가축분뇨처리 장비(스키드모터) 1대를 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할 방침이다.

충북지역

강서친환경유통센터에 2t 시범공급

충북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서울 초등학교들의 식단에 오른다. 충북도는 서울 학교급식 전담기구인 서울농수산물공사 강서친환경유통센터에 무항생제 돼지고기 2t을 시범 공급했다고 지난 3월 24일 밝혔다. 이번 돼지고기 납품은 충북도가 지난해 10월 7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맺은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 충북도는 충북 친환경축산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 매주 주문을 받아 1~2t가량의 돼지고기를 유통센터 측에 학교급식재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학교급식 사업을 올해 190여 개교로 늘리고 앞으로 1270개 초중고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무항생제 닭고기, 청풍명월 한우, 육품정 육우 등의 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지역

축협 공동브랜드 '한우지에' 200억원 매출

경남지역 축협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우공동브랜드 '한우지에'가 지난해 20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남 농업회사법인 한우지에의 제2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매출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우지에는 2008년 4월 도내 19개 축협이 출자한 출범한 농업회사법인으로 그 해 6월부터 본격 시판에 나서 6개월여간 5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출범 2년여만에 매출이 4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한우지에는 경남농협과 공동으로 20억원을 투입, 김해시 진례면에 종합육가공센터를 건립해 전국 유통망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제주도, 돈육수출 재개 추진 '주목'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위한 정부간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출이 상반기 중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일본, 필리핀 등 수입국과의 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앙정부가 오는 6월 중 OIE(국제수역사무국)에 제주를 포함한 국가단위 구제역 청정지위 회복을 신청할 계획인데다 구제역 종식선언으로 국내 유일의 돼지열병 청정지역인 제주산 돼지고기의 조기 수출재개 전망이 밝은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주형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